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업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 538-2897

찾아 오시는 길



- 열차
KTX(정읍↔서울·용산) 상행 25회, 하행 26회.
SRT(정읍↔수서) 상행 14회, 하행 9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정읍↔서울·용산) 상행 18회, 하행 26회.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정읍↔서울강남) 상행 15회, 하행 15회.
동서울터미널(정읍↔동서울) 상행 3회, 하행 3회.
- 시내버스
황토현전적지(버스번호 124) 7회
정읍시터미널→내장주유소→잔다리목→덕천사거리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칼럼
정근식 / 서울대 교수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① 명사대담
김형수 / 신동엽문학관 상임이사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정신 / 참여자 이검호의 손자

유적지 탐방
전남 장흥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기획② 지역대담
김창남 / 장흥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

신동엽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

백제의 달밤이 지나갔다,
고구려의 치맛자락이 지나갔다,

왕은,
백성들의 가슴에 단
꽃.

군대는,
백성의 고통한
문지기.

앞마을 뒷마을은
한 식구,
두레로 노동을 교환하고
쌀과 떡, 무명과 꽃밭
아침 저녁 나누었다.

가을이면 영고(迎鼓), 무천(舞天),
겨울이면 씨름, 윷놀이,
오, 지금도 살아 있는 그 흥겨운
농악(農樂)이여.

시집가고 싶을 때
들국화 꽃고 꽃가마,
장가가고 싶을 때
정히 쓴 이슬마당에서
맨발로 아가씨를 맞았다.

아들을 낳으면
온 마을의 경사
딸을 낳으면
이웃마을까지의 기쁨,

서로, 자리를 지켜 피어나는
꽃밭처럼,
햇빛과 바람 양껏 마시고
고실고실한 쌀밥처럼
마을들은 자라났다.

지주(地主)도 없었고
판리(官吏)도, 은행주(銀行主)도,
특권층도 없었었다.

반도(半島)는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그 위에 백성들의
축제(祝祭)가 자라났다.

신동엽 申東燁

1930~1969. 시인. 충남 부여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 단국대학교 사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장시(長詩)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로 등단.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장편서사시 「금강」과 시극(詩劇) 「그 입술에 파인 그늘」, 단편 「검데기는 가리」 등 많은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 - '신동엽 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

시 해설

위의 시는 동학농민혁명 장편서사시 「금강」 제6장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분배가 자연스럽던 '생활의 시대'의 사회구조가 지주(地主), 판리(官吏), 은행주(銀行主) 등으로 재편되어오면서 그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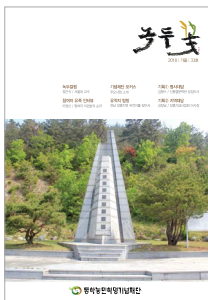
● 제출방법

- 2018년 9월 5일부터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신동엽 /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
- 04 **녹두칼럼**
정근식 / 서울대학교 교수
- 07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재출범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발간
교원직무연수 /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 10 **기획① 명사대담**
김형수 / 신동엽문학관 사무국장
- 18 **유족회소식**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전북, 서울경기지구)
- 19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정신 / 참여자 이경호의 손자
- 27 **유적지 탐방**
전남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 37 **기획② 지역대담**
김창남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44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 50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동학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이 기념탑은 1894년 12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맞아 전투를 벌인 석대(石臺)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흥읍 충렬리 산기슭에 서 있다.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동학농민군의 희생과 평화를 다시 생각한다.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학농민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어떻게 달랠까?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다. 불행하게도 한국 근현대사는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 받지 못했다.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패퇴한 이후,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자신들의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농민혁명 10주년에 시작된 러일전쟁과 이후 40년간 지속된 일제의 통치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이었다. 해방은 사건 후 50년이 지났을 때 찾아왔지만, 이들에게 귀 기울일만한 여유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의 소용돌이가 너무 컸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해방을 맞이했을 때 대략 70세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청년시기에 경험했던 열망과 좌절, 고통의 경험을 생생히 말할 수 있었을 테지만, 누구도 이들에게 진지하게 이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또 6.25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군이나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참여자들의 기억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지 못하고 사라졌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저항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에 맞선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전라도 일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저항운동이었고 일본과 중국 간의 '갑오전쟁'을 이끌어왔다. 전장은 전라도와 경기도 일대로부터 평양과 압록강을 넘어 대련의 요동반도와 위해의 산동반도로 확산되었다. 전쟁은 치열한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토벌에 가까웠다. 일본군은 전라도 남단에서처럼, 다렌과 휘순에서 청나라 병사들과 주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였다. 조선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일본군이 물러난 뒤 청의 관리들과 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수습하였는데, 그 규모가 3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오늘날 휘순에 남아 있는 만충묘는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전쟁에서 가장 참혹했던 사건은 1937년 12월에 발생한 남경대학살일 것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1945년 8월의 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희생자보다 더 큰 3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극동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학살된 주민은 최소 12만명, 최대 약 35만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이 사건 또한 상당기간 그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남경은 일본에 점령되어 있다가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82년 여름, 일본에서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역사 서술에서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입 또는 진출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립기념관 설립을 모색하였듯이, 중국에서는 남경학살기념관과 항일기념관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중국에는 항일전쟁과 관련하여 3대 기념관이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의 출발로서의 '7.7사변'이 발생한 북경의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 1937년 12월에 발생한 남경학살을 다루고 있는 남경대학살기념관,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을 다루고 있는 심양의 9.18 역사박물관이다. 항일전쟁기념관은 1987년 항일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준공되었고, 9.18 역사박물관은 1999년 9월 18일에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남경학살기념관은 1985년 8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40주년'에 개관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10년 후에 기념관이 확장되고 새롭게 발굴된 '학살현장'에 기초하여 전시가 바뀌었다. 특히 사건의 야만성과 희생자 규모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점이 되었다. 왜 그렇게 일본군이 남경에서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군은 속전속결로 중국 국민당군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였지만, 상해와 주변지역에서의 중국군의 저항은 상당했다. 당시 중국 국민당정부의 수도였던 남경의 점령은 군사전략적 차원보다는 상징정치적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장개석은 일본군의 상해 점령 후 곧바로 수도를 중경으로 옮겨 피신했지만, 당성지(唐生智)는 남경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남경보위전을 지휘하였다. 일본군에 함락된 남경에서 6주간 진행된 살육과 강간은 지옥의 풍경보다 더했다.

남경학살의 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재미 중국계 학자였던 아이리스 장이었다. 그녀는 발굴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찾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하여 『남경의 강간 : 세계 제2차 대전의 잊혀진 홀로코스트』라는 책을 1997년에 출판했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 난징대학살, 그 야만적 진실의 기록』으로 출판되었다. 아이리스 장은 남경학살 당시에 자행되었던 야만적 살인과 여성들에 대한 만행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독일 지멘스사에 근무했던 라베(John Rabe)와 여러 외국인 선교사 및 기업인들이 국제안전지대를 만들어 난민들을 대피시키고 죽음을 구했던 적십자사 활동도 발굴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일본 극우 세력들로부터 수 차례 협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생존자들과의 인터뷰과정에서 전이된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유감스럽게도 2004년 11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2차 확장 후 다시 10년이 조금 더 지난 2007년, 즉 남경학살 70주년에 다시 확장 신축하였다. 이때 당시 중국인들의 참상을 표현한 각종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평화의 여신상도 세워졌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가 지속되면서 중국정부는 2014년 2월,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기념일로, 12월 13일을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결정했다. 2015년 10월,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념관측의 자료에 따르면, 근래에 매년 800만 명이 이 전시를 관람한다.

히로시마는 피폭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평화도시로 거듭났다. 남경은 어떠한가? 최근의 남경학살 연구는 거시사적 연구와 미시사적 연구로 나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남경은 12월 13일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국제평화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내부에서 명 왕조나 국민당정부의 수도였다는 점을 의식하여 역사문화도시로 도시정체성을 구축하려는 흐름도 강하지만, 남경대학살의 고통에 기반하여 평화정체성을 추구하는 흐름도 상당하다.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한중일의 근현대사와 고통의 기억은 공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평화도시가 없다. 중국에서는 1931년부터 14년간의 항일운동 기간에 약 2천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0만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잘 알지 못한다. 한국에서의 남경학살에 대한 관심은 인권 담론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광주와 제주를 중심으로 증대되었다. 5.18기념재단은 2010년 8월 남경대학살기념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2016년에는 남경학살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을 아우르는 1894년 동북아시아 전쟁은 어떤가? 동학혁명기념재단도 국내적 시야에 머무르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1894년 당시의 일본의 전략과 중국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후의 동아시아의 전쟁 경험들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전주나 정읍으로부터 대련과 위해를 잇는 기억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할만하다. 거대한 폭력과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정근식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문학박사)한 후 전남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미국 시카고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평화를 위한 끝없는 도전』(2018),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 회학』(2016), 『포위된 평화, 굴절된 전쟁의 기억』(2015),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2015), 『지역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2013),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2013), 『한국의 노숙인』(2012), 『지역 민주주의와 축제의 관계』(2012),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2』(2012), 『식민권력과 근대지식』(2011),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2006),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2004) 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재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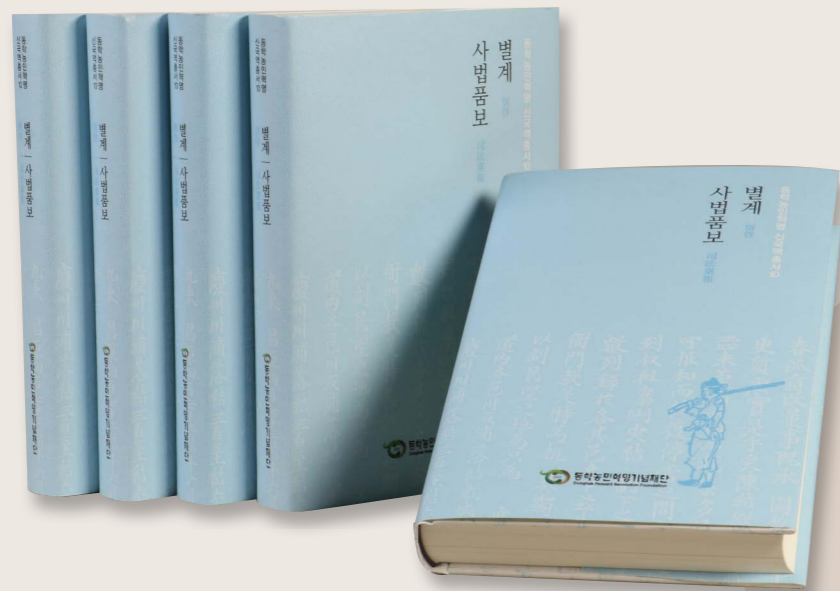
□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다시 출범했다. 위원회는 처음 2004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유족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위원회는 총 3,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0,567명의 유족을 등록한 후, 한시적인 유족등록 신청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017년 12월 19일)하여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한시적인 유족등록 신청기한도 삭제하여 유족 등록을 위한 추가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 9월 4일(화)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로 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의 운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관한 업무처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 이승우)이 수행하게 된다.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유족등록신청서, 유족명단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기념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유족등록신청은 9월 5일부터 받고 있으며 관련문의는 기념재단 연구조사부(063-538-2897)로 하면 된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발간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이 발간되었다.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확대와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사료를 선별하여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에는 『별계(別啓)』와 『사법품보(司法稟報)』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 『별계(別啓)』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국왕에게 올린 경상감사의 장계(狀啓)와 각 아문에 보낸 경상감영의 별보(別報)를 수록한 필사본이다. 주요 내용은 1894년 말 경상도 각 군현의 동학농민군 진압 사실 기록이다.
- 『사법품보(司法稟報)』 전국 관아에서 법무아문(법부)으로 보낸 필사본 보고서와 질품서(質稟書) 등을 연대순으로 모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군의 활동 및 정부의 처결 내용 등이다.

교원직무연수 /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 팀별 토론회



▣ 유적지 답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교원직무연수’가 열렸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진면목을 바로보기 위해 주제 강연 및 유적지 답사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로 3회 째 진행되어 지금까지 총 106명이 참가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진행된 올해 교원 직무연수는 전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주제 역사강연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이이화 역사학자),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김양식 충북연구원), ‘동학농민혁명 역사수업 이렇게 해보자!’(조광환 정읍화산중학교 교사), ‘동학농민혁명 주제 강의 활용 방법’(최지연 송내관의 재미있는 史교육현장) 등으로 진행되었다.



“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호근 감독은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지요.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인터넷이 출현하던, 소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하던 시대에 일견 망각하기 쉬운 새로운 문명의 대안적 패러다임인 동학농민혁명 서사를 현대적 뮤지컬로 재현한 것은 문호근 감독의 꽤 각별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물처럼 늘 새롭게 흐르고 있는 세월의 격랑 위에서 당대가 어떤 콘텐츠를 왜,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

일 시_ 2018년 8월 29일(수) 11:00
장 소_ 신동엽문학관(충남 부여군 부여읍)
대 담_ 김형수 | 신동엽문학관 상임이사

이번 호 명사대담에서는 신동엽문학관 김형수 상임이사를 만났다.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문학평론가인 김형수 상임이사는 한국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충남 부여군에 자리한 신동엽문학관 상임이사를 맡아 신동엽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와 전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 <경력> 한국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중앙대 문창과 겸임교수, 신동엽문학관 상임이사 등
- <저술> 시집 : 『아침 이슬 두 말』(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빗방울에 대한 추억』(문학동네, 1995), 『가끔씩 쉬었다 간다는것』(푸른숲, 1991) 등
- 소설집 : 『조드』(자음과모음, 2012), 『이발소에 두고 온 시』(문학동네, 2003), 『나의 트로트 시대』(실천문학사, 1997) 등
- 평론집 :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아시아, 2015),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아시아, 2014), 『흩어진 중심』(자음과모음, 2010), 『옷자락의 그림자까지 그림자에 스민 숨결까지』(문학동네, 2008) 등
- 산문집 : 『바람이 자우고 남은 것들』(자음과모음, 2013),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려라』(살림터, 1992) 등.
- 평전 : 『문익환 평전』(다산책방, 2018), 『소태산 평전』(문학동네, 2016)

신동엽 시인은 1930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하여 전주사범과 단국대학교 사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59년 『이야기 하는쟁기꾼의 대지』로 등단하여 시집 『아사달』을 간행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주제 시극(詩劇) 『그 입술에 파인 그늘』(1966)을 집필하여 상연(上演)하기도 했다. 특히, 1967년 발표한 시 「껍데기는 가라와 장편서사시 『금강』은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한 시 작품의 대표적인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병학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한국작가회의로 개명(改名)하였지만 개명 이전 한국민족문학작가회의 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이곳 신동엽문학관 상임이사직을 맡고 계시는데, 먼저 상임이사님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형수 문 시인, 오랜만이에요. 작가회의 모임이 아니라 신동엽문학관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내 영혼의 조국이 백제예요.(웃음) 이제 몸에도 제법 부여 물이 스며든 것 같아요. 사실 젊음을 송두리째 5.18 물살에 쓸려 다닌 셈인데, 10년 전 작가회의 일을 끝낼 때 나의 젊음도, 또 공동체를 위한 당면 기간도 일단 끝났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좀 쉬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신동엽 시인에 매달린 건 5년째예요. 그 분의 짧고 강렬한 생애에 저희 세대가 빗을 젖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존경의 마음을 바치는 일로,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는 일로 여기고 있어요. 내년이 50주년이라 요즘에는 그 생각에 골똘해 있네요.

문병학 우리 재단의 소식지 『녹두꽃』은 인쇄본과 웹진(e-Book)으로 제작되어 5천여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이번 호를 받아보실 독자들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신동엽문학관의 관련성에 대해 다소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967년에 발표된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와 같은 해에 발표된 장편서사시 『금강』이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창작된 문학작품으로는 한국 현대시단에서 대표적인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대담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수

네, 신동엽은 전주사범학교를 마친 후 단국대학교 사학과와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사학(史學)과 문학(文學)을 함께 전공한 셈인데, 사실 신동엽 정신이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한 인간의 정신이 직조되는 과정을 단순화하기는 아주 어렵지요. 특히 신동엽처럼 근대 문명과 등지는 궤적을 그렸던 정신을 제도적 틀로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신동엽에 의해 '역사의식'이라는 낱말이 사회과학 용어에서 문학 비평용어로 옮겨왔다는 표현을 했더니, 역사의식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흔하게 사용되는 비평용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저처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문학에는 모든 용어가 등장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미학적 틀로 자리 잡는 현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한국의 민족문학 운동이랄까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운동 같은 또 다른 의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건데, 신동엽에게서 중요한 점은 그가 우리의 토착사상으로서의 동학사상(東學思想)에 주목했다는 점이에요. 그가 말하는 역사의식에는 마르크스주의 등 근대 철학사조에 내재된 '역사발전' 혹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따위와는 종자부터 다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서사시 「금강」은 후천개벽의 눈으로 읽는 '동학의 뒷이야기'라고 봅니다.



문병학

한국문단에서 최초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발표된 시 작품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직후인 1947년 「연간조선시집」에 발표된, 전남 영광 출신 시조시인 조운의 「고부 두승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는 심각한 좌우대립과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점철되면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기를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 창작·발표 또한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1966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하는 신동엽 시인의 시 작품이 창작·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신동엽 시인의 활동 등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김형수

신동엽 시인은 1959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어요. 당시에 양주동 선생이 본심을 봤는데, 사실은 예심위원인 박봉우 시인이 때를 쓰다시피 했다는 회고담이 있어요. 바로 이듬해에 일어난 4.19 때 삼총사가 하근찬, 박봉우, 신동엽인데, 이들을 제2차 전후세대라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있었던 작가세대 안에서 사회적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 이루어진 거죠. 그 후에 등장하는, 소위 4.19 때 시위학생이었던 세대들은 서구 시민 사회를 민주주의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요. 하여튼 전후세대와 4.19 세대 사이에 낀 일군의 저항문학 세대가 신동엽 세대인데, 아마 그가 동학을 시로 쓴 이유는 무엇보다 그 시대정신의 영향이 크겠지요. 가령, 조정래는 여순사건의 기억을 감춰두고 있다가 5.18을 보면서 「태백산맥」을 구체화시켰다고 술회합니다. 신동엽도 그랬을 거예요. 이미 1959년에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사상 의지를 그리고 있고, 또 1960년 메모에 동학에 관한 대작을 구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문병학

신동엽 시인의 동학농민혁명 장편서사시 「금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신은 4.19 때 형성된 사회적 비판의식이 5.18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습득해가는 우리 사회운동의 궤적과 조금 다른, 서구적 근대를 지향하기보다는 도리어 서구적 근대를 거부하면서 우리 민족 혹은 동양적 근대를 추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강」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전경인사회(全耕人社會)에 대한 지향 등에서 서구적 근대 그 너머 온전한 근대를 추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신동엽의 동학에 대한 관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장편서사시 대작(大作)을 구상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요?



김형수

신동엽은 서울에 갓 상경해서 4.19를 겪었고, 공업화의 노정을 따르는 서구 근대 문명의 광폭한 행보를 목격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음부터 혁명적 열정을 노래하며 등장한 그가 노동운동이랄까 혹은 민중운동이랄까 하는 것의 산업 사회적 문제의식을 의도적으로 건너뛰고 있다는 점이에요. 데뷔작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 나오는 “나는 원시(遠視) / 그래서 당신은 멀리 있어야 잘 생각한다.” 같은 표현들이 토착사상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에게 4.19 정신의 ‘가지 않은 길이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죠. 특히 근대인들의 시야가 좁은 ‘전문화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보았던 ‘탈근대론’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대작을 구상한 흔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작성년도가 불분명한 메모 때문인데, 1956년 가을에 『동경대전』 『대순전경』 『회천기』 『초적』 『전라산천』 『동학과 동학난』 『이용구전』 등의 자료조사를 착수하겠다는 메모, 또 1960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1962년 여름에 현지답사를 하겠다는 메모가 있는데 그 대상이 호남지방, 속리산 지방, 설악산 지방, 금강 연안지방이에요. 단편 서정시를 쓰면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현지답사와 관련 기록들을 조사하려고 하지는 않죠.

문병학

신동엽 시인은 동학농민혁명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적 형상화를 기한 작품을 많이 창작·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신동엽 시인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주제 시 작품으로는 「껍데기는 가라」를 비롯하여 장편서사시 「금강이 있고, 시극(詩劇)으로 국립극장에서 상연(上演)된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 세계 혹은 시 정신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하여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고구려를 비롯한 역사적 언술들은 토착사상의 무대를 염두에 두면서 은유적 대칭 언어로서 자주 사용한 게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동엽 시인은 4.19 이전에 이미 후천개벽을 그리고 있고, 데뷔작에서부터 서구적 근대의 길에 문제제기를 하며, 원시반본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천개벽의 전사(前史)를 백제 패망 이후의 미륵신앙의 시대로 보고, 이것이 수운(水雲)에 의해 하나의 토착적 사상으로 탄생하여 이후 증산 강일순의 시대, 소태산 박중빈의 시대를 거쳐 왔다고 보는데, 신동엽에게서는 강증산 시대의 정신이 엿보입니다. 시천주(侍天主)의 방향성을 원시반본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강증산의 원시반본 사상이 ‘천지공사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의 시를 서양철학사의 눈으로 읽으면 매우 퇴행적인 경향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죽을병이 들었을 때 어린애 상태가 되어야 살 수 있다는 사상으로서 원시반본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는 인류가 근대문명을 따라가지 말고 되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문병학

신동엽 시인은 사학과 문학을 동시에 전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이 아주 지대했음을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법한데...

김형수

맞아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동엽은 등단도 하기 전에 이미 동학기행을 마쳤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생겼을 때 보행자들이 그와 함께 또 어떤 정신의 길을 걸을까 궁금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길을 걷는 건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봐요. 서적의 행간을 훑고 가는 것만으로 모든 학습이 완료될 턱이 없잖아요? 모든 지식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대지가 반드시 있는 법이지요. 신동엽의 동학순례는 「산에 언덕에」는 물론이고 한국전쟁을 노래한 「진달래 산천」 같은 시들에게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는 특히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행적인데, 김남주 시인도 친구 이강과 둘이서 동학 진군로를 돌고 와서 최초 지하신문 「함성」지를 발간하고 문학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진경, 이영진 등의 시인들도 동학 답사를 하고 와서 '5월시 동인'을 구성하지요. 신동엽은 동학기행을 통해서 역사의 육체를 보았던 게 틀림없어요.

문병학 원래 신동엽 시인 부모님 고향이 부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신동엽 시인의 부친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1894년 갑오년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한 뒤 부여로 숨어들었고, 그 후로 계속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어 신동엽 시인이 부여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들었거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김형수 예전 기록에 의하면 신동엽 시인의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혼자 경상도 쪽에서 부여 쪽으로 건너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신동엽 시인의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역사를 전해 듣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선 아드님인 신좌섭 교수의 시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동학년 어느 날, 핏덩이로 어미 등에 업혀 부여에 숨어든 탓에 유난히 조상들을 그리워했던 할아버지.” 신동엽 시인이 죽기 전에 읽었던 책이 『대순전경』이었다는데,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시를 더 읽어볼게요. “아들의 식민지 가난을 조상들을 대신해 미안해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4대 독자 아들 젓밥을 남몰래 차례상에 얹어야 했고, 덕분에 나는 열한 살부터 음복을 배웠어.”(신좌섭 「정월초하루, 일부」) 알다시피 부여는 동학농민군이 슬쩍 피해간 곳이라 신동엽을 빼고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상할 소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여는 당시 동학농민군이 숨어 살기 좋은 동네인 셈이에요. 직선거리로 20킬로도 안 되는 곳에 우금치가 있는데 말이예요. 그렇다면 신동엽의 아버지는 우금치 전투에 참전한 동학농민군의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문병학 21세기로 들어선 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비정상하게 높아졌습니다. 생계문제 해결,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 등이 문화콘텐츠의 다양함과 활용성의 중요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현재화를 추구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도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신동엽 시인의 장편서사시 「금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되면서 「금강」을 원작으로 뮤지컬이 제작되기도 했고, 마당극으로 제작·공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금강」이 차지하는 위상과 신동엽 시인의 위상 등에 대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신동엽의 서사시(敍事詩) 「금강」(錦江)을 문호근 감독이 가극(歌劇) 「금강」(錦江)으로 제작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공연을 하였지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호근 감독은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지요.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인터넷이 출현하던, 소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하던 시대에 일견 망각하기 쉬운 새로운 문명의 대안적 패러다임인 동학농민혁명 서사를 현대적 뮤지컬로 재현한 것은 문호근 감독의 꽤 각별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물처럼 늘 새롭게 흐르고 있는 세월의 격랑 위에서 당대가 어떤 콘텐츠를 왜, 어떻게 재구축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신동엽도 이런 측면을 심도 깊게 사유했고 예비했어. 보세요. 4.19 직후 외래사조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백제, 예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 금강, 예부터 이곳은 썩고 대신에 정신을 남기는 곳.” 백제, 금강이 다 동학농민혁명의 서사로 다가가기 위한 좌절적 체험의 기호들인데, 감히 말하자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라진 문명’이 언제나 ‘신화적 복원’의 거점이 됩니다. 저는 이를 모범적 사례라고 봐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살피는데 있어서 신동엽 시인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군 공주우금치전투지 답사를 할 때 가능하면 1시간쯤을 할애하여 이곳 신동엽문학관에서 1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백마강 강변에 세워진 신동엽 시인의 시비를 찾곤 합니다. 대답을 통해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동엽의 문학정신과의 연계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모임인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전북임실지구대회(7. 21.)와 서울경기인천지구대회(8. 25.)를 개최하였다.

전북임실지구대회

지난 7월 21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삼요정에서 열린 전북임실지구대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족들이 참가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자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한 3.1 운동에도 참여하였다가 옥사(獄死)한 독립유공자 김영원 선생이 후학양성을 위해 건립한 삼요정(三樂亭)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 최효섭 사무총장, 김창식 이사를 비롯한 유족 70여명과 오광덕 운암면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전북임실지구 정신선양대회

서울경기인천지구대회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북구 삼양로(봉황각)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대회를 가졌다. 의암 손병희(천도교 3대 교주) 선생이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의 준령(峻嶺)인 3.1운동을 준비한 역사적인 장소인 봉황각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유족들은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의 규정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극 부합되기 때문에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지정하여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서울경기인천지구 정신선양대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점호의 손자 이평신

Q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녹두꽃 독자님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집안 형님 중에 이동흠이라는 분이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에서 활동하셨어요. 원칙적으로는 참여자 이자 겸자 호자 할아버지 직계후손인 큰집 손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등한시하는 바람에 작은집 손이 활동을 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동흠 형님 권유로 10여 년 전 함께 다니다가 동학농민혁명을 알게 된 것이고요.



Q 유족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신 내용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제가 장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은 것이 여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할 때부터니까 금년으로 벌써 6년째네요. 현재는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지역의 대접주로 활동하셨던 이방언 장군님의 증손자이신 이종찬 선생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지요?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장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은 물론이고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직을 오래 맡아서 고생하셨는데, 고인이 되신 이종찬 회장님과 같은 집안인가요?

A 그래요. 이종찬 회장님과는 같은 집안인데 촌수는 좀 멀지만 형님이 되시지요. 이종찬 회장님하고 몇 년간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던 차에 언젠가 뜬금 없이 저에게 '내가 내 뒤를 이어서 장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유족회를 이끌고 나가겠어요.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몇 월 며칠 어디로 나오라더군요. 약속한 날 그곳에 나갔더니 그 자리에 함께 나오신 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님들께 '제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과 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함께 맡고 있어서 이 동생한테 유족회 회장직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이사님들이 박수를 치는데... 공식화된 마당에 하는 수 없이 유족회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그 양반에 비하면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분이 유족회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이사직은 계속 맡으셨어요.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직이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김창남 현 이사장님한테 넘기셨는데, 그 무렵 건강이 무척 안 좋아지셨습니다.



Q 이종찬 회장님은 이방언 장군 후손이신데, 선생님 조부님께서도 이방언 장군님과 본관이 같은가요?

A 본관이 인천 이가, 같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방언 장군님과 같은 집안이라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전한 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Q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때 신청한 분이 이전에 말씀하신 이동흠 형님이신데, 직계 형님이십니까?

A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동생, 그니까 숙부님의 아들인데 저랑은 항렬이 같은 사촌 형이에요. 이 겹자 호자 할아버지는 아들을 4명 두셨는데, 제일 위 백부님, 그 다음이 제 아버지이고, 아버지 아래 동생이 이동흠 씨 아버지이고, 네 번째 막내아들이 광주에 사시지요. 백부님께 아들 형제가 있는데 동학에는 무관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숙부님 아들 이동흠 씨가 유족회 모임에도 참여하고, 참여자 신청서도 제출하고 그랬지요. 이동흠 형님은 저와 같은 방계손이에요.

Q 이동흠 그 어르신도 지금 장흥에 살고 계시나요?

A 아니에요. 작년에 작고하셨어요.

Q 저런, 그럼 작년에 장흥지역에서 이종찬, 이동흠 두 어른이 돌아가셨네요. 참여자 유족들 중 손(孫)이나 증손(曾孫)분들이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예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A 그래야지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우리 유족회 회원 모두가 고령이어서 유족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증손자, 고손자 되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관심 가질 틈도 적고, 그럴 마음도 부족하여 더욱 걱정이예요.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신 신청서를 보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석대들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한 후 부용산으로 피신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 부용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가요?

A 장흥석대들에서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이 바로 부용산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석대들전투에서 패배하여 한 부대는 부용산으로, 또 다른 한 부대는 천관산으로 몸을 피했다가 재기를 모색하려 했대요. 석대들에서 강진 방향에 서 있는 게 부용산이고 그 산을 넘어 우뚝 솟은 산이 천관산이에요. 부용산은 장흥과 강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용산은 명산이어서 옛날에 이곳 어른들은 '약다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Q 부용산으로 피신하게 된 얘기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조부님께서 석대들전투에 참전하기 전날 밤 화승총을 받았대요. 당시 동학농민군이 확보하고 있는 화승총이 많지 않아 전투에 참가하는 농민군 전체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농민군 중에서 체격조건이 좋고 몸이 날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했대요. 좌우간 조부님께서 화승총을 받았는데, 총알이 나가는 사거리나 총의 성능이 일본군 자동소총과는 비교가 안 되었대요. 화승총은 기껏해야 논다랑이 건너편 정도, 그러니까 100미터도 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한번 총을 손 후 매번 총구에 불을 붙여야 하니 자동소총을 들고 있는 일본군과 관군에게 상대가 되었겠어요? 조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대들전투 때 눈독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서 화승총을 쏘면 총알이 고작 논배미 끄트머리에 떨어진대요. 사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석대들전투 전날 밤 농민군 지도부가 어산에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산 지역에서는 조부님 혼자 회의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어산이라는 곳은 지금의 어산리(語山里)를 말하는 데 행정구역상 어동(語東)과 어서(語西)로 나뉘어져 있어요. 조부님께서는 당시 어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산에서 회의를 한 후 다음날 새벽에 자올재를 넘어 석대들로 가서 전투에 참전하셨는데 거기서 일본군과 관군 등 연합부대에 크게 패배하여 바다 쪽으로 피신하던 중 부용산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농민군들이 부용산이나 천관산, 남해바다 섬들로 숨어들었다고 해요. 하여간 석대들전투 후에도 부용산에서는 한동안 밤낮으로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왜놈들이 부용산까지 쫓아가서 농민군을 토벌한 것이죠.

Q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배하여 피신한 농민군을 일본군과 관군이 쫓아다니면서 찾아내 살육을 감행한 것이지요?

A 그렇지요. 일주일쯤 후에야 총소리가 멎고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요. 석대들전투 이후 당숙님들 생각에 동생인 조부님이 당연히 죽었을 것으로 여기고서 동생 시신을 찾아 짊어지고 내려오려고 바지계를 지고 부용산을 헤맸대요. 그런데 저만치에서 조부님이 화승총 한 자루를 손에 들고서 산을 내려오고 있더라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조부님이 그러시더라고. 왜놈들에게 밀려 부용산으로 들어간 후 토벌하러 온 왜놈들과 몇 날 며칠 밤낮으로 쫓고 쫓기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조부님이 부용산에 있는 절로 숨어들었고, 그 절간까지 토벌대가 들어왔지만 그곳 주지스님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요.

Q 그러니까 조부님께서 석대들전투 이후에도 살아남으셨던 거네요? 그 이후 조부님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A 84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조부님이 돌아가신 걸 기억해요. 생전에 뵈기는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지 정작 조부님께는 들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 숙부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화승총을 고방의 찻그릇 뒤에다 숨겨놓았대요.

Q 석대들전투 때 조부님께서 사용하셨던 화승총을 말씀하신 건가요?

A 그렇지요.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살림까지 모조리 싹 몰수를 당해버렸는데, 화승총은 어찌어찌 숨겨서 고방에다가 감춰두었다고 합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 화승총 행방이 묘연했는데, 나중에 우리 형님이 이전에 살던 집을 헐고 다시 집을 지을 때 아래채 마루 밑에서 화승총이 나왔어요. 그런데 개머리판 이런 것들은 썩어서 없어지고 총열만 남아 있었어요. 그 총열이 바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 화승총의 총열이지요.

Q 그렇군요. 전시된 화승총 총열에 대한 역사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해서 참여자와 그 유족 등록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다시 참여자와 유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그 후속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참여자와 유족 등록업무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장흥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저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등록이 재개되면 등록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A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흥지역에는 다수(多數) 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얘기도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장흥군 안양면 면지(面誌) 기록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때 참전하셨다가 희생된 분이 있더라고요. 또 전남 여수에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 때 전사(戰死)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부용산의 부용사라는 절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족보의 기록을 근거로 예전에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을 신청했는데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다시 운영되면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이 재개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업무가 재개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근거들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그래야지요. 어떤 학자들은 갑오년 전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분들이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현재 등록된 참여자와 그 유족은 턱없이 적지요.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탓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Q 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장흥지역 기념사업이나 유족회 활동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작년에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이제 법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었으니까 자립으로 법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족회가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이니까 우리 유족회 회원 모두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념재단이나 전국의 기념사업단체와 유족회는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로요. 안타까운 것은 서로 형제 처럼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오순도순 지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헐뜯는 상황이 간혹 감지되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놓고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족회 내부적인 갈등이 꽤 많아요. 그럴 정신과 시간에 유족회 임원진이 스스로 힘을 모아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등 본질적인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Q 네, 회장님.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에서 내려다본 석대들전적지

장흥석대들전적지



▣ 석대들전적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 일대
- 국가사적 제498호

1894년 12월 15일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 3만 여명이 일본군, 관군, 민보군으로 구성된 연합부대를 맞아 전투를 벌인 장소이다. 석대들전적지는 현재 장흥읍 남외리 부근 국도변에 위치한 석대 앞의 들판을 말한다.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은 12월 4일 벽사역, 5일 장녕성, 7일 강진현, 10일 강진병영 등을 차례로 점령한 뒤 장흥으로 되돌아온 날이 12일이었다. 이 무렵 일본군 미나미(南小四郎)의 지시를 받은 나주의 관군이 영암, 능주, 강진을 거쳐 장흥으로 들어왔고, 12일부터 15일 사이 일본군과 이규태 부대가 장흥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일본군과 통위대 교장 황수옥(黃水玉)의 부대를 맞아 벌인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퇴각한 동학농민군은 3만 여명의 대군으로 이들 부대가 12월 15일 일본군과 관군으로 구성된 연합부대를 상대로 석대들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도 패한 동학농민군은 장흥의 부용산과 천관산, 해남과 진도 등지로 숨어들었다. 석대들전투의 의미는 전봉준 장군의 주력부대와와는 별도로 전라도 남해지역에서 반일항쟁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1) |

장흥·강진지역에서 맨 처음 동학에 입교한 사람은 1864년 장흥군(현 보성군) 응치면 강산리 박병락(朴炳樂)과 그의 부인 문방례(文方禮)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동학교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약 30년 후인 1890년대 초반기로 동학교단의 활동이 강원도와 경북 산간지역을 벗어나 전라도와 충청도 내륙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후 장흥지역 동학교도들은 1892~1893년 전라도와 충청도, 서울 등지에서 전개된 교조신원운동 과정을 통해 활동력을 키운 장흥·강진의 이방언, 이인환, 구교철, 이사경 접주 하의 농민군은 전봉준 부대와 함께 무장기포, 황룡전투, 전주성 점령 등에 참가했다는 것을 오지영의 『동학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조선정부의 파병 요청으로 청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고, 일본군도 진출하자 외국 군대 철병요구를 위한 명분을 위해 전주성을 비워달라는 관군 측과 화약(和約)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군은 고향으로 돌아와 6월 20일경 부산면 자리번지, 7월 3일에는 장흥읍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에 나섰다.

|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2) |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추진하던 1894년 여름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치 정세는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조선정부의 철병요구를 거부한 일본군이 경북공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친일내각을 수립한 뒤 청일전쟁이 도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을 개혁하던 동학농민군은 1894년 9월 초 반일항쟁의 기치를 올리고 전라도 삼례에서 다시 봉기하였다. 이방언 대접주를 비롯한 장흥·강진지역의 동학농민군도 2차 봉기에 참가하였으나 남해를 통한 왜적의 침입과 든든한 후방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일부는 복상하지 않고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복상하자 나주의 수성군과 전라도 남부지방의 토호세력들이 결집하여 농민군을 침탈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0월 중순부터 장흥·강진·함평·나주·무안·능주 등지에서 농민군의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영암·덕교·강진 등지의 농민군이 장흥으로 모여들자 장흥부사 박헌양은 벽사역의 역졸과 전라병사 휘하 병영군 3천여 명을 모아 대응하였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2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석대들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8호로 지정되면서 장흥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홍보영상관과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기념관에는 석대들전투 모형 전시, 당시 농민군이 사용했던 화승총의 총열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3) |

장흥지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수성군 사이에 벌어진 공방전은 12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4일 새벽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평지에 위치한 벽사역관을 향해 포를 쏘면서 기습하였고, 이에 놀란 역졸들이 도망치는 바람에 벽사역은 쉽게 함락되었다. 여세를 몰아 동학농민군은 5일 장녕성(長寧城) 정문인 동문을 부수고 성으로 돌입하여 부사 박헌양을 붙잡아 처형하였다. 이어서 동학농민군은 7일 강진성, 10일 강진병영을 차례로 함락시킨 후 12일 장흥으로 다시 돌아왔다.

장흥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 3만여 명은 12월 15일(양력 1895.1.10.) 석대들에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본부 및 제3중대와 교도중대장 이진호(李軫鎬)가 이끄는 부대를 맞아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이후 대흥, 관산, 강진지역 접주들을 중심으로 장흥 인근 고읍(古邑) 대내장(竹川場, 玉山)으로 후퇴한 동학농민군 4~5천명은 12월 17일 일본군·경군과 결전을 벌였으나 또다시 패배하여 장흥의 부용산(芙蓉山)과 천관산(天冠山), 해남과 진도 등의 섬으로 피신하였다.

동학루(東學樓) ·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동학루(東學樓)



동학농민혁명기념탑

- 전라남도 장흥군 충열리 산 8~3
- 사적 제498호

동학루와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은 1992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석대(石臺)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건립하였다. 건립부지 3,600㎡, 탑의 높이가 11.6m인 기념탑은 장흥군비 210백만원을 투입하여 1990년 5월 착공, 1992년 준공하였다.

이후 장흥석대들전적지(長興石臺들戰蹟地)는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98호(2009. 5. 11.)로 지정하였다. 사적의 총 면적은 35,700㎡으로 ①동학농민혁명 석대들전투지(석대들관) ②동학농민군이 깃발을 꽂았다고 전해지는 석대(石臺) ③장흥지역 전투에서 사망한 관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영회당(永懷堂) 등을 아우르고 있다.

장흥관아 터(농민군 점령지)



장흥관아 터



장흥관아 터 표지석

- 전라남도 장흥군 동동리 187-1 일대

장흥관아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던 곳이다. 1949년까지 장흥군청으로 사용되다가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장흥농업기술학교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현재 관아 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동헌 터'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사창리 농민군 집결지



▣ 사창리 동학농민군 집결지(現 장평면사무소, 現 장흥면민회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 27-1 (장평면사무소 일대)

1894년 갑오년 당시 농민군이 벽사역과 장령성 공격에 앞서 집결한 장소이다. 동학농민군이 집결했던 사창리는 현재 장평면사무소 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벽사역(碧沙驛) 터



▣ 벽사역 터 및 동학농민군 처형지 부근의 비석들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5-2

1894년 12월 4일 동학농민군은 벽사(碧沙) 찰방역참(察訪驛站)을 점령하였다. 이후 일본군과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퇴각시킨 후 이곳을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가두어두거나 처형 장소로 사용하였다. 당시 벽사역의 위치는 건산리 75-2번지 일대로 알려져 있다.

관산 [고읍, 古邑]



▣ 관산전투지, 옥산 대내장(玉山, 竹川場, 현재 관산읍사무소)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21-3 일대

장흥석대들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장흥에서 남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관산, 고읍(대내장 竹川場 또는 玉山)으로 후퇴하여 진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다가 12월 17일(양력 1895.1.12.) 관산으로 들어온 일본군과 경군에 맞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는데 그 장소가 현재 관산읍사무소 일대이다.

대접주 이방언 묘, 묘비



▣ 대접주 이방언 묘, 묘비

-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산 26-1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지역 대접주였던 이방언 대접주의 묘와 묘비이다. 부인 함양 박씨와 합장된 이 묘는 이방언이 살았던 마을 뒷산(접정리 산 26-1)에 있다. 남도 장군인천이공방언지묘(南道將軍仁川李公芳彦之墓)라고 새겨진 묘비는 1982년 후손들이 세웠다.

| 이방언(李邦彦, 1838-1895) 대접주 |

장흥 용산 목촌 태생으로 자는 자방(子邦), 호는 방언(芳彦), 본명은 이민석(李民錫)이다. 대제학(大提學) 이문화(李文和)의 후손으로 부친은 장흥향교 용산리 향약 청원계의 도정 이중길(李重吉)이다. 유학자인 고산(鼓山) 임헌회(林憲晦)의 제자로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과 동문수학하였으나 주자학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1890년 무렵 동학의 가르침을 수용하여 입교한 후 장흥의 접주로 활동하였다. 이후 보은집회(1893.03), 무장기포(1894.03), 장성 황룡전투(1894.04), 전주성점령(1894.04.)에도 참가하였다. 특히 장성 황룡전투 때는 장태를 고안해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성 함락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폐정개혁을 추진하던 이방언은 새로 부임한 장흥부사가 동학 교도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자 9월에 다시 봉기하여 벽사역, 장흥부, 강진병영 등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다가 12월 15일 석대들전투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게 패배하여 12월 24일 체포되었다. 이후 서울로 압송된 이방언 대접주는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1895년 4월 27일 다시 체포되어 장대에서 처형당했다.

영회당(永懷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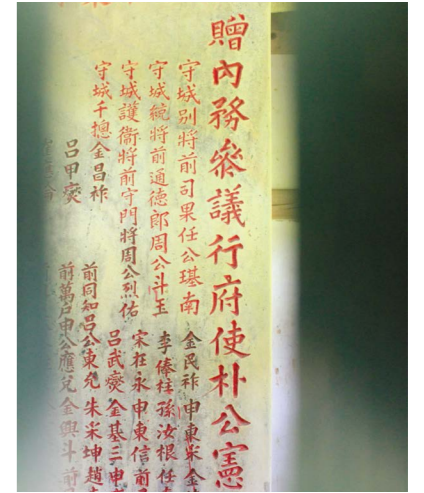


▣ 영회당 전경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78

1894년 12월 5일 벌어진 장령성전투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장흥부사 박헌양과 장령성전투에서 전사한 96명의 수성군 장졸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안내문을 통해 1898년 순절단, 1899년 순절비를 설치하였고, 1928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영회당을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봉안된 위패는 장령성전투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장흥부사 박헌양, 장흥부의 기실(記室, 부사 측근에서 기록을 맡았던 벼슬) 박영수(朴永壽), 장흥부 수성별장 임기남(任璡南), 통장(統將) 주두옥(周斗玉), 호위장(護衛將) 주열우(周烈佑) 등이다.

갑오동란수성장졸 순절비 (甲午東亂守城將卒 殉絕碑)



▣ [비각] 갑오동란수성장졸 순절비

▣ 갑오동란수성장졸 순절비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산 6-3

1894년 12월 5일 동학농민혁명군이 장흥부가 있던 장녕성(長寧城)을 함락시킬 때 전사한 장흥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96명의 수성군 장졸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1899년 송사 기우만이 비문을 지어 순절단 옆에 이 비를 세웠다. 1928년 현 위치로 옮겨진 순절비는 상단에 '光緒二十年 甲午東亂守城將卒殉絕碑' (광서이십년 갑오동란수성장졸순절비), 오른쪽 면에는 '贈內務參議行府使朴公憲陽'(증내모삼의행부사박공헌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자리번지 집강소 터



▣ 자리번지 집강소 터 (원경)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980 일대

1894년 6월 20일경 동학농민군이 장흥지역 최초로 집강소를 설치한 장소이다. 장흥지역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함락한 뒤 관군과 화약을 맺고 돌아와 이곳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대 터(농민군 처형지)



▣ 장대 터 (現 장흥서초등학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0-2(장흥서초등학교) 일대

동학농민혁명 당시 체포된 많은 농민군이 처형된 장소이다. 장흥지역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체포와 처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석대들전투에서 농민군이 패배한 다음이었다. 석대들전투, 고읍 대내전투 직후 칠량면과 대구면 등지에서 일본군이 잡아들인 동학농민군은 45명, 관군이 잡아들인 동학농민군은 132명 등이다. 관군과 일본군은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벽사역과 장대에서 처형하였다. 일본군이 장흥부근에서 처형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인원만해도 300명에 이른다.

1894년 12월 24일 체포되어 나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재판을 받았고 1895년 3월 21일 무죄로 석방된 이방언은 고향 장흥으로 내려왔다가 전라감사 이도재가 내린 토평령(討捕令)에 따라 다시 체포되어 이곳 장대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자료 |

- 이상식 외,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 『순무선봉전등록(巡撫先鋒陣騰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 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7.
-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 『다시 피는 녹두꽃 - 동학농민군 후손증언록Ⅰ』,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4.
-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 동학농민군 후손증언록Ⅱ』,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7.
- 『강재 박기현 선생의 일기 - 강재일사』, 강진군·영산원불교대학교, 2002.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시_ 2018년 7월 12일(목) 13:00

장소_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무실

대담_ 김창남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문병학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유난스러운 더위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이사장님의 소개와 함께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창남입니다. 우선 우리 장흥기념사업회가 정신선양사업을 활력 있게 잘 추진해야하는데 상당히 답보상태에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장흥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기념관 운영에 국비가 지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남 도비와 장흥 군비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장흥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기 전에 전라남도도의원 3선으로 도의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장흥지역의 농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대들전적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였고,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장흥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병학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된 것은 언제였는지요? 장흥석대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 우뚝 서 있는데, 기념탑을 92년에 준공했죠?

김창남

1990년대 초부터 기념탑 건립사업을 추동하여 기념탑을 199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일에 우리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과 장흥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일부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임의단체로 창립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4월 전라남도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병학

창립 이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앞에서 매년 기념식을 추진해온 것인가요?

김창남

그렇습니다. 기념탑을 세운 후 장흥기념사업회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기념식을 거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115주년이던 2009년도에는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로 전국 기념대회를 장흥 탐진강변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어쨌거나 기념식은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만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그 위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에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과 정신선양사업, 학술발표 및 편찬사업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병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 지식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청소년들에게 전승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장흥기념사업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김창남

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워낙 급변하다보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흥기념사업회에서는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시·군 교육지원청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계절학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발 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군과 관군은 토끼몰이식으로 동학농민군을 서남해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지리산이나 대둔산 등지에서 소백산자락, 그리고 다시 태백산자락으로 숨어들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북녘으로 올라가서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으로 숨어들면 자칫 국제문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군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남해안으로 동학농민군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장흥은 3만여 명의 농민군이 모여 참전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흥석대들전투는 장흥지역 농민군만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흥지역의 접주들도 많았고, 장흥지역 농민들도 상당부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하여 화순 이양, 능주 쪽에서 내려온 농민군과 나주 쪽에서 내려온 농민군, 순천과 보성 쪽에서 밀려온 농민군 등이 합세하였습니다. 충청도나 경상도 등지로부터 우금치전투에 참전했다가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오를 이룬 동학농민군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석대들전투를 앞두고 일본군과 일본군의 지휘를 받은 이규태 부대가 나주 쪽에서 장흥으로 들어왔고, 이두황 부대는 순천과 보성을 거쳐 장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공주우금치에서 패전한 동학농민군을 철저히 서남해안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있었을 것임은 짐작했지만 그러한 전투전략이 있었다는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렇게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다 하고 농민군을 토벌했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도리어 그 일본군에 편제되어 동학농민군을 궤멸시키는데 힘을 보탤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문병학

네 장흥석대들전투는 주력부대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사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의기투합한 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이 치밀하게 계산하여 몰아붙인 전투인 것 같습니다. 장흥석대들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장흥석대들전투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은 공주우금치에서 전봉준 장군의 부대인 주력부대가 패배하면서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신식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그 이후로도 전북 원평의 구미란전투, 그리고 지금의 정읍인 태인전투 등을 통해 재기를 위해 때마다 기회를 살리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장흥석대들전투는 동학농민군이 남해 바다를 등지고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펼친 격전이었던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석대들전투에서 또다시 일본군의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농민군이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놓일 수 없었지만 장흥석대들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 역사는 사뭇 달라져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문병학

장흥부를 점령하기 위해 벌여졌던 장흥지역의 전투들과 그 밖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장흥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는 석대들전투가 가장 대규모 전투였지요. 석대들전투 이전에는 벽사역, 장령성, 강진성, 강진병영 등지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장흥지역의 전투 중에 특기할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나면, 다른 지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가 벌어지면 대체적으로 관의 수장인 군수나 부사가 다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흥의 부사 박현양은 아들과 같이 성을 지키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부사나 그 장졸들의 태도가 여타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 박현양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방언 대접주와 동문수학했던 친구지간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정이 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한쪽에는 박현양 장흥부사와 그 장졸들의 위패를 모시고 영면을 기리는 '영회당(永懷堂)'이라는 사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이처럼 장흥 지역의 독특한 지역정서로 인하여 기념탑을 건립하고도 제막을 못하다가 1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제막식을 거행하게 된 배경이지요.

문병학

저는 장흥지역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여건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을 기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화합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94년 당시 장흥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던 이방언 대접주와 장흥 지역사회의 한 축이었던 유림의 김한섭은 동문수학한 친구사이였겠습니까? 이점을 흑백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황을 현재화 하여 화합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념사업을 기획·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남

우리 장흥기념사업회에서 그런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장흥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탑에서 기념제를 올리는데, 그 무렵인 매년 3월 영회당(永懷堂)에서 박현양과 그 장졸들의 순절을 기리는 제를 올립니다. 아직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흥기념사업회 회장인 제가 영회당 제사에 참여하여 잔도 올리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오년 때는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지역의 유림세력이나 동학농민군이 각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충(忠)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서로 화합과 상생의 덕목을 찾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병학

살아가면서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갑오년 당시에 서로가 반대편에서 적으로 대했다고 하여 후손들까지도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영회당 제사에 기념사업회 대표자가 참여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영회당 대표가 참석한다면 그 또한 뜻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김창남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영회당 제사 모실 때 참석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실천해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장흥석대들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에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 계실 텐데...

김창남

석대들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은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과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님입니다. 한승원 선생님이 박준영 전 지사님께 동학농민혁명 당시 석대들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국가사적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박준영 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사적이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라남도과 장흥군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사가 된 것입니다.

문병학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지났지만 다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는데 후임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직을 맡고 있습니다. 장흥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념재단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대승을 거둔 항토현전적(국가사적 제295호)에 자리하고 있다. 갑오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념관을 찾아온 주요 방문단체는 흥천군 문화관광과(10명), 경기도의원(10명), 이리부송초등학교(23명), 동곡초등학교(13명), 국군지휘통신사령부(90명), 금지동초등학교(27명), 4·19혁명공로자회(30명), 송도고등학교(41명), 지원중학교(32명), 남성고등학교(26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19명), 송덕고등학교(35명), 일곡초·중학교(28명), 군산교육지원청(23명), 보은정보고등학교(37명), 새싹유치원(31명), 정남초등학교(27명) 등이다.

1	2
3	4

- ① 흥천군 문화관광과(10명) ② 경기도의원(10명)
 ③ 이리부송초등학교(23명) ④ 고창 동곡초등학교(13명)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9

- ⑤ 국군지휘통신사령부(90명) ⑥ 남원 금지동초등학교(27명) ⑦ 2018 청소년 순례대회(20명)
 ⑧ 전주 서울지역 동기회(12명) ⑨ 신안군 하익면 주민(14명)

기념관 방문단체



10	11
12	13
14	15

- ⑩ 4·19혁명공로자회(30명) ⑪ 정읍 북초등학교(75명) ⑫ 서울 '기쁨이 싹트는 나무'모임(34명)
 ⑬ 인천 송도고등학교(41명) ⑭ 익산 지원중학교(32명) ⑮ 익산 남성고등학교(26명)

기념관 방문단체



16	17
18	19
20	21

- ⑯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19명) ⑰ 송덕고등학교 국토순례(35명)
 ⑱ 배영고 국제교류단-중국연해(8명) ⑲ 익산 청소년문화의집(30명)
 ⑳ 광주 일곡초·중학교(28명) ㉑ 군산교육지원청(23명)

기념관 방문단체



22	23
24	25
26	27

- ㉔ 제주도 사회과교사 답사단(7명) ㉕ 익산 청소년문화의집(33명)
- ㉖ 안양 세움교육연구소(7명) ㉗ 김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28명)
- ㉘ 보은정보고(37명) ㉙ 서울 강남구(11명)

기념관 방문단체



28	29
30	31
32	33

- ㉚ 새싹유치원(31명) ㉛ 성가정어린이집(17명)
- ㉜ 수원시 초등학교 퇴직 교사(7명) ㉝ 정읍 정남초등학교(27명)
- ㉞ 원불교 부안지구 교당(80명) ㉟ 부안군 백산면 이장협의회(60명)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6월 26일	세계일보	만민이 평등한 세상 꿈꾸며... 동학군 '치절한 전쟁'
6월 26일	NEWSis	영동서 동학 124주년 학술대회 등
6월 26일	광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물 매입
6월 26일	중부일보	동학농민지도자 최제우·최시형... 경기도에는 안교선이 있었다
7월 2일	NEWSis	충북 동학과 3·1운동의 가치는...청주서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
7월 2일	전북중앙신문	2018 동학농민혁명 대동제 열려
7월 2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서 '동록개의 꿈' 새기다
7월 11일	새전북신문	동학혁명 발자취 걷는다
7월 17일	전북도민일보	동학혁명과 문학공부, 그리운 스승님을 생각하며...
7월 18일	전주MBC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재추진
7월 20일	문화일보	'녹두장군 전봉준'드라마 첫 제작
7월 26일	Moneys	200만 vs 4만, 기독교 맞선 동학의 승리
7월 27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7월 30일	국제신문	동학군, 혁명의 깃발 들다
7월 30일	광주일보	녹두장군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8월 1일	뉴스웨이	남원향토박물관, '남원과 동학농민혁명'특별전 개최
8월 6일	NEWS1	'우리가 청소년 동학 IN'...고창군, 1박2일 청소년 동학캠프
8월 14일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8월 16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정도 천년 공휴일 지정할 수 있나
8월 20일	부안독립신문	백산기포와 지운 김철수, 신석정 시인과 반혁명화공동체...
8월 20일	남도일보	동학농민군 한이 담긴 광주 유덕동 덕산
8월 24일	전북중앙신문	여성의 눈에 비친 '동학' 그 비극적 역사를 되짚다
8월 24일	나우뉴스	갑오(甲午) 최후의 전쟁 -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8월 24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민속국악원 초청 공연
8월 30일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농민군 진압기록 담은 신국역총서 발간
8월 30일	전북도민일보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동학농민혁명과 민초의 삶' 강연
9월 4일	파이낸셜뉴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출범
9월 5일	새전북신문	"땅 줄테니 동학공원 조성해달라"
9월 6일	연합뉴스	태안에 건립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조감도
9월 7일	연합뉴스	소설 '국수'영화로 만든다...나우필름과 계약
9월 7일	아시아경제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인문학강좌 개최
9월 10일	대경일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9월 11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 백년사하청이 되지 않게 하자
9월 13일	남도일보	동학농민혁명 유족등록, 시비대상 아니다
9월 13일	BBS뉴스	이이화 "고승열전과 동학농민운동 쓰겠다"
9월 13일	한겨레	"그저 '동학난 폭도'아닌 '의병' 인정해주는 작업이죠"